

“



우봉희 권사

@comingtrue_church

“

신앙을 가지기 전,
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끼셨나요?

저는 하나님의 존재를
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어요.

멀리 계신지 가까이 계신지,
의식조차 하지 않았습시다.

크리스마스 때 집 앞 교회에 먹을 것 받으러
재미 삼아 한 번씩 다녀온 정도였어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
순간은 언제인가요?

교회를 다니면서,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
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

이유도 없이 예배당에 들어서
예배가 시작되면 계속 울었습니다.
예배가 끝나면 눈물을 닦고 나왔어요.
한 달이 넘게요.

저 스스로도 왜 교회만 가면
울다 오나 의아했어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나중에야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.

하나님이 저를 통해 회개의 눈물을,
또 그 안에 산다는 의미의
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구나.

제가 스스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,
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셨구나.
안타까워서, 또 사랑하셔서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내가 느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?

나의 구원자이시고, 나의 전부예요.

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,
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.

그 사랑은 말로도 생각으로도
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.
너무 감동이고 감사할 뿐입니다.

@comingtrue_church

“

하나님을 알고 난 뒤,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?

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.

그 전엔, 남편과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
“이혼하자”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.
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는,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어
요. 남편이 저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는 것도요.

아, 그리고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지 석 달쯤,
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.

@comingtrue_church

“

제 딸이 천식이 심했어요.
국민학교 1학년이던 어느 겨울밤,
기침을 하다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.
옷과 이불을 갈아 다시 눕히고,
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.

“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, 이 어린 딸을 이렇게
두실 수 있나요.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,
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며 살겠습니다.”

십일조가 뭔지도 모르던 초신자였는데,
저도 모르게 그렇게 서원했어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그 밤, 딸이 말했습니다.
창문도 현관문도 다 잠겼는데,
발치에 예수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서계시더라고요.

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, 온몸이 그 눈 속으로
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요. 그러면서 무언가가
사르르 내려갔다고 했어요.

그 순간, 딸의 천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.
지금 쉰한 살이 되도록 건강해요.
울며 드린 하소연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,
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.

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
온전히 받아들이고,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됐어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?

먼저 이 교회를 다니던 두 분이,
저를 잊지 못해 한 번만 와 달라고
간곡히 청하셨습니다.

교통도 불편해서 안 가려 했는데,
하도 청하셔서 인사만 하고 오자 했습니다.

7년을 함께 다른 교회에서
신앙생활한 분들이었거든요.

그런데 그날,
우리 부부가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어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교회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나요?

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져요.
교우들이 사랑이 많고 표정이 밝습니다.

아이부터 어른까지요.

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만 모인
교회인가 싶을 만큼이에요.

그냥 교회에 오면 좋고 반갑습니다.

참 귀한 교회예요.

한 집사님이 처음부터 저를 많이 챙겨 주셨어요.

그 사랑이 지금도 참 고맙습니다

@comingtrue_church

“

나에게 이루어지는 교회란?

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,
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.

@comingtrue_church

“

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께
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

여러분,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.
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.

육신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,
영혼의 세계인 천국을
꼭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.

이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,
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.

@comingtrue_church

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

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
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
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

로마서 8:28

이어지는 간증



@comingtrue_church